

제목: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시편 23편 1-9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늘 따라 다녀야 할 감사가 너무나 적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생활의 중요함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감사해야 하는지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 1) 하나님의 _____의 은혜 때문입니다. (2절)
- 2) 부르짖을 때에 늘 _____ 하셨기 때문입니다. (4-6절)
- 3) 지금도 _____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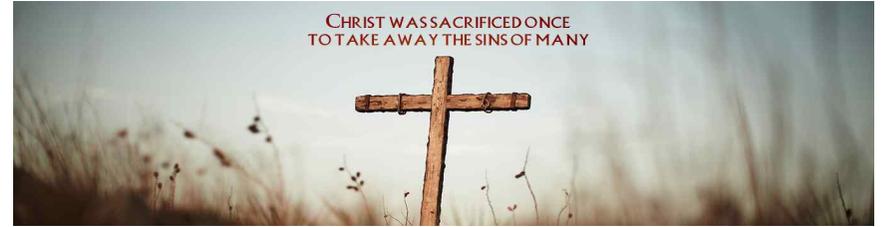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추수감사 주일예배 Thanksgiving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시편 107편 1-9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salm 107: 1-9 구약 882 페이지 President
- 말씀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True Reason for Thanksgiving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참으로 어려운 감사)

거의 30년 전 시카고에서 LA(로스엔젤레스)로 이사를 가다가 잘못 사람을 만나서 이삿짐 전부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긴 이야기라서 지금 여기에 글로 적을 수 없지만 그 일 후 가진 것이 없던 우리 가정에 이제는 진짜 아무 것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기저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용품들을 구하고 또한 새로 구입해서 방 두 칸 아파트에 채워 넣었던 일이 있다. 그런 일 후에 내 마음 속에는 많은 것이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 같이 되지 않았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방 3칸 집에 다 채워 넣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차고에 짐을 쌓아 놓아 자동차를 주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고 자주 다짐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쉽지 않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이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다. 10년 만에 꺼내어서 사용할지언정 필요를 따라 구입한 것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었다. 이것을 하려고 해도 또한 저것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것들이 전부 집에 있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많다. 그만큼 풍부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시고 또한 쌓아놓고 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감사의 문제다.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 놓고 살아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철철 넘치지 않는다. 왜 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전부 없어졌을 때에 옆 사람이 작은 것을 하나 빌려 주어도 감사했는데, 언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쌓아 놓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 모두 집에 3주치 먹을 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만일 그 쌀이 없다면 언제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능력 생긴다고 하신다. 감사가 믿음의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방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18절)라고 말씀 하시며 생명을 얻겠다고 하신다.

본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받을 때에 감사에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자. 너무 많지 않은가?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자.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 합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대림절

다음 주일부터 성탄 주일까지 대림절로 지킵니다. 모두 예수님을 기대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